

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8.(목) 경향신문(온라인), “쿠팡, 김앤장·청와대 전관 통해 ‘노동부 내부 정보’ 실시간으로 빼냈다”, 한겨레(온라인), “쿠팡, 김앤장·청와대 전관 통해 ‘근로감독 정보’ 실시간 파악” 기사 등 관련

- 쿠팡이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,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했다.
- 2020년11월13일 작성된 e메일을 보면, 쿠팡 임원들은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D팀장을 만났다. D팀장은 쿠팡측 ‘식사접대’ 의혹 관련 노동부 감사를 받는 당사자로 알려졌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'20.11월 쿠팡 감독(「온라인 유통업체 감독」) 중 감독관이 식사 접대, 이에 따른 봐주기 감독 의혹 등('25.12.23. SBS뉴스)에 대해 장관의 특별 지시로 특정감사 중에 있으며('25.12.24.~)
- 이번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감독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
 - 또한, 언론보도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감독관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였으며, 앞으로 감독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감독관도 취업심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
- 아울러, 쿠팡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산재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향후 진행 예정인 감독을 엄정하게 하여, 법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오태웅 (044-202-7801)
		담당자	서기관	박수호 (044-202-7803)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승훈 (044-202-8914)